**세계관**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불행이 있으면 행운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면만 존재하지 않고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 질서이다. 이러한 양분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태초에 세상은 인간을 낳았다. 인간은 세상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하자 세상은 인간에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다.

하지만 인간은 세상의 이치를 지키지 않았다. 인간은 한 면에만 치우치고 싶어했다. 인간은 발전할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싫은 것은 버리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 자신이 좋은 것만 가지고 싶어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 자연 심지어 같은 인간을 헤치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본인의 행복이 늘어나면 피해를 받은 다른 인간에겐 불행이 늘어나 질서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본래 질서란 한 개체에게도 적용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기적인 인간은 한 개체인 본인의 불행함을 견디지 못했다. 그 결과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인간에게는 좋은 쪽으로만, 반대로 권력이 없으며 돈이 없는 인간은 안좋은 쪽으로만,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시작했다.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질서가 어지럽혀졌다.

힘이 없고 가난한 인간들은 같은 인간들에게 박대당하고, 멸시당하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해줄 막연한 존재를 믿으며 그것에 이름을 붙였다. 그것이 바로 '신' 신은 인간보다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이며 악을 처단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을 숭배하고 섬기면, 언젠가는 가난하고 힘 없는 자신들을 박대하고 멸시하는 권력을 거머쥔 자들 로부터 구원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인간들이 신을 숭배하고 섬기며 자신들의 구원을 바라자, 세상은 불행한 면에 치우친 힘이 없고 가난한 인간들의 청을 들어줬다. 그렇게 신이 탄생했다. 신은 인간을 관장하며 인간이 망치는 양분의 질서를 바로잡는 존재이다.